선을 넘어서 April 19

• 사도행전 24:5

예수님은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단호히 말씀하시면서도(마 5:18)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으로 오랜 전통을 뒤엎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기준과 선을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선’(lines)에 갇힌 이들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이라는 선에 갇혀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 가운데 더욱 빛났고, 죽음 가운데 생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부활에 든든히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인간이 그어 놓은 가장 선명하고 명확한 선인 ‘죽음’을 넘어서는 역사입니다. 그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행 9:5). 이후 바울은 선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감정, 환경, 상황이라는 제한에 갇히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자유자에게는 자유자가 되어, 종 된 자에게는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에게는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enthusiasm)의 헬라어 어원, ‘엔 테오스’는 ‘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세상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전염병은 나나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퍼져 나갑니다. 전염병에 걸리는 순간, 퍼뜨린 사람과 똑같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매한가지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자리 잡았을’(positioning) 때 그의 삶이 변했고, 복음이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❶ 죽음이라는 선에 갇혀 있습니까, 선 너머 부활을 바라봅니까?
❷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이 있습니까?